

홀트소식

AUTUMN 2022 VOL.206





가을 이야기

MOM'S FESTA 플리마켓 현장모습 (12p 계속)



06



08



24



26

Contents

가족을 찾아주고

- 04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를 위해
- 06 Welcome, Back! 모국방문, 다시 시작하다!

가족을 지켜주고

- 08 생후 5개월 된 사귀이를 홀로 지켜내는 엄마, 그 후 이야기
- 10 부모와의 헤어짐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 12 엄마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MOM'S FESTA 플리마켓

가족이 되어주는

- 15 우리 같이 어때!
- 18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
- 20 나만을 위한 택배 상자, 엄마마켓
- 22 꿈을 향한 날개짓의 시작
- 24 네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

나눔 스토리

- 26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싶어요
- 29 아이들의 소중한 나눔 가족, 홀트패밀리#

32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설태호 이사장(주북상사 대표) |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김경희 이사(前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린다백 이사(홀트아동복지회 이사) | 정익중 이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스티브 모리슨 이사(한국입양홍보회 이사) | 장재훈 감사(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오윤숙 감사(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 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산하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1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홀트학교 031)915-2913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브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가족센터 033)251-8014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062)363-8878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홀트서울심리상담센터 02)331-7192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홀트대구어린이집 053)746-7504
 하남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粥 042)585-3004
 고운粥 031)216-9004
 아름粥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
 (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네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206호 · 기간 발행일 | 2022년 10월 25일 발행인 | 설태호 편집인 | 이수연
 발행처 |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02-331-7073~6 홈페이지 | www.holt.or.kr
 좋은 사연 · 좋은 제언 | plan@holt.or.kr 디자인 | 일투디투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를 위해

입양대기아동들은 위탁가정에서 지내다 대부분 신생아기 이후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애착형성, 관계, 감정조절, 식사와 수면, 학습 등 새로운 환경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적응해야 하죠. 그래서 많은 입양부모님들은 아동이 가정에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주고, 양육에 있어 신중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양육하기 시작한 입양부모님들 중 일부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하고 싶은 부담감과 긴장, 불안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아동의 욕구를 즉시 만족하게 해주지 못해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양육 노력의 효과가 기대한 것에 비해 더디다고 생각될 때, 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예상하지 못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가 일어날 때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생아 시기를 지난 후 새로운 가족을 만나 애착 형성의 결정적 시기를 놓친 입양아동과 입양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는 비단 입양부모만의 어려움이 아닌,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양육자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입양부모의 행복한 양육을 위해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양육자로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 효능감 검사	양육 스트레스 검사
대 상	입양을 전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예비입양부모	입양 후 사후관리 중인 입양부모
내 용	양육자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특성 파악 배우자의 양육에 관한 지지 정도 평가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파악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으로 느끼는 심리적 감정 상태 및 에너지 파악 • 배우자의 양육지지 정도 파악 • 양육 효능감 증대를 위한 대처자원과 대처전략의 특성 파악 • 아동의 개인차 및 발달수준 이해 • 양육 자신감 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으로 느끼는 심리적 감정 상태 및 에너지 파악 • 양육 효능감 증대를 위한 대처자원과 대처전략의 특성 파악 • 아동의 개인차 및 발달수준 이해 •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정서적 안정 • 양육 자신감 성취
지원방향	입양부모 임상심리상담 지원 입양아동 언어/놀이/심리치료 지원	

"다른 아이들은 말을 잘하고 엄마아빠에게 요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조금 느린 것 같아 걱정했어요. 양육에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 우리가 예은이(가명)를 잘 양육하고 있는 게 맞는지 긴가민가했죠. 홀트에서 양육 효능감 검사를 권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양육 효능감 검사와 심리상담, 언어치료를 통해 예은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도 생기고, 아이 발달도 점점 또래와 비슷하게 좋아지고 있어서 기뻐요. 홀트에서 예은이 입양 후 사후관리 기간에도 지금처럼 곁에서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니 참 든든해요. 감사드립니다!"

입양전제 위탁가정으로 예은이를 양육하고 있는 입양부모님은 양육 효능감 검사 후 추가로 임상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예은이의 경우 언어발달이 다소 느린 점을 파악하여 언어치

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50대에 첫 양육을 경험하게 된 입양부모님은 예은이를 열심히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예은이의 발달수준이나 개인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예은이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여 양육에 대한 불안을 덜고 심리상담을 통해 양육자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입양부모를 적극적으로 돕고, 양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비입양부모 및 입양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Welcome, Back!

모국방문, 다시 시작하다!

온 세계의 하늘길까지 막았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입양인이 오랫동안 모국방문을 미뤄야 했습니다. 점차 해외 이동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올여름, 드디어 고대하던 모국을 향해 국외입양인들이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6월 미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에서 스물 다섯 명의 입양인들이 홈트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자신을 낳아준 친생부모님과 상봉, 태어난 도시 혹은 발견된 곳 등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정, 순희 쌍둥이 자매는 1992년 한국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어린 시절 입양부모님께서는 다양한 인종, 문화적 배경을 적극 받아들여주시고 어디에서 왔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 노력하셨지만 늘 가슴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 기간 중 친생부를 만나게 되었고 잃어버린 정체성의 조각을 찾게 되었고 말합니다. 쌍둥이가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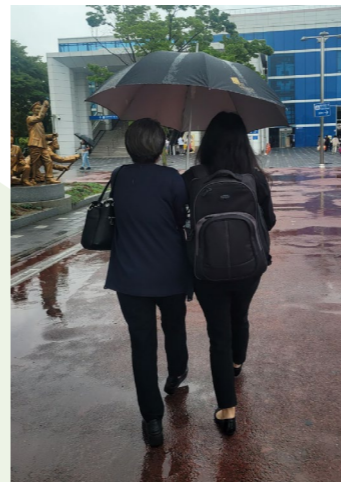
“생후 5개월 무렵 입양된 정호씨는 낳아주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는데 이모와 사촌누나까지 만날 수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상봉 당일까지도 정말 어머니가 오실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혹시 실망하게 될지 몰라 오히려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던 정호씨였지만, 미국에서부터 준비해 온 목걸이를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7개월 동안 친생부의 손에 어렵게 길러지다 미국으로 입양된 태희씨는 38년 만에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고향인 목포에서 만났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를 많이 닮은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태희씨는 애써 웃으며 그런 아버지의 눈과 얼굴을 휴대폰에 열심히 담아봅니다.”



“40대 중반인 상희씨는 10여 년 전부터 친생가족 찾기를 의뢰하여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렵게 찾았지만, 죄책감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어머니의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스무살, 어렸던 엄마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고, 이제 더 늦기 전에 딸을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렸던 만남, 모녀는 나란히 한 우산을 쓰고 걸었던 길이 꿈같은 하루였다고 전합니다.”



“40년 전, 그리 춥지 않은 날을 골라 아이 생일이 적힌 작은 쪽지를 윗옷 주머니에 넣고 누구든 잘 길러 주십사 애원하며 아기를 길에 두고 떠난 엄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며 새로운 가정에서 잘 자랐다. 낳아주셨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잘 자랐으니 더는 죄책감 속에서 본인을 괴롭히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지만, 친생부모님을 찾을 길 없는 아들의 한숨만 커집니다.”



“제 아들, 딸들에게 아빠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줄 수 있도록 한 걸음 진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이 저로 인한 것이었을까 오히려 제게 더 큰 죄책감으로 물려옵니다. 이제는 용서와 이해만이 남았어요.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당시 어머니의 결정에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어머니, 용기를 내어 주세요.”

글 입양가정지원센터장 이은정

입양가정지원센터에서는 국외로 입양된 입양인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모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친생가족과 위탁모 상봉을 지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입양인들이 친생가족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 02-331-7015-22



▲ 지원 전

생후 5개월 된 사랑이를 홀로 지켜내는 엄마, 그 후 이야기

▼ 지원 전



사랑이는 태어나자마자 골화석증*이라는 희소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빠르게 받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기적처럼 공여자를 만났으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 엄마는 다시 좌절했습니다. 다행히 홀트아동복지회 위기지원캠페인을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많은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사랑이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 골화석증 : 골흡수 장애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골밀도가 증가하는 희소병

생후 5개월의 작은 몸으로 이식수술을 잘 견뎌준 사랑이.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완치에 가깝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있는 사랑이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사실 사랑이 엄마는 그동안 의료비를 부담하기 벅찬 상황에서 장난감이며 예쁜 옷, 맛있는 간식까지도 맘 놓고 살 수 없는 형편이 항상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지원을 통해 사랑이는 따뜻한 내복과 외출복, 장난감을 선물 받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부쩍 자란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랑이는 제 전부예요.” 엄마는 사랑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는 눈을 맞추면 방긋방긋 웃는, 미소가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사랑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또 다른 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기지원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사랑이의 수술 및 의료비와 가족 생계비로 우선 지원되었으며, 다른 위기가정 아동의 의료 지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 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지원 후



부모와의 헤어짐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소 씨는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지내며 외롭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두웠던 시간을 홀로 이겨내고 성인이 되어 소중한 사람을 만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는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미소 씨는 안정된 가족을 꾸리지 못한 채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위기에 놓인 가족

아이들이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악착같이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받은 검사에서 심각한 당뇨병을 판정받았고, 척추 혈관종과 담낭결석 등의 합병증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관리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합병증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 미소 씨는 지인에게 당한 사기로 큰 금액의 부채까지 생기면서 아이들의 유치원비는 물론, 밀린 주거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두 아이를 교육시키고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미소 씨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엄마 아파? 엄마 죽는 거야?” 하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들을 위해 함께 응원해주세요.

열이 40도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크게 아픈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미소 씨. 어려운 상황 속에 미소 씨는 모두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켜내야 할 두 아이가 있기에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소 씨와 두 아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나아갈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응원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미소씨 가족의
주거비와 교육비로 우선 지원되며,
이후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비로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02-331-7073~6
후원계좌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엄마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MOM'S FESTA 플리마켓



지난 9월 24일 롯데몰 김포공항점 썬큰광장에서 한부모셀러가 여는 축제 MOM'S FESTA 플리마켓이 개최되었습니다. 한부모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왔던 플리마켓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펀딩으로 진행하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플리마켓 참여에 앞서 한부모셀러들에게 브랜딩, 마케팅을 주제로 홍보·창업교육을 실시하여 플리마켓 준비와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로 플리마켓에 참여한 한부모셀러들은 손수 상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여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는 경험을 통해 이후 자립준비를 위한 값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선 홍보대사



▲ 김성은 홍보대사



▲ 김미경 홍보대사

이웃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플리마켓 개장식에는 후원기업인 롯데지주, 롯데GRS,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관계자와 홀트아동복지회 김성은 홍보대사, 한부모셀러 대표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후원금 전달식, 앞치마 세례모니를 통해 한부모셀러에 대한 응원의 말씀도 전해주었습니다.

한부모셀러들을 직접 응원하기 위해 김성은 홍보대사가 스페셜 셀러로 참여, 한부모셀러 부스에서 함께 상품을 판매하며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한부모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김미경 홍보대사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와 함께 '자존감 있는 엄마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여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선 홍보대사는 '지금은 선물이다'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많은 한부모 셀러를 응원, 현장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개

장식, 토크콘서트, 경품이벤트와 같은 무대이벤트에는 홀트아동복지회 자립준비청년들의 명예멘토인 강도현 MC가 진행을 맡아 재치 있는 입담으로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캐논코리아, 크리스피크림도넛, 스탠리, 와프랩, 롯데백화점, 롯데월드에서도 플리마켓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다양한 경품을 전해주었습니다. 캐논코리아와 스탠리, 와프랩은 팝업스토어 운영과 이벤트도 진행하였으며, 팝업스토어 봉사자로 함께 해준 디엔코리아 DONGNAE(동네) 임직원분들까지 많은 이웃이 함께한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자리를 빛내준 이웃셀러, 한부모셀러들의 상품 판매와 부스 운영을 도와준 롯데봉사단이 있었기에 더욱 다채로운 플리마켓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의 이야기

플리마켓의 주인공인 한부모셀러들은 손수 자신만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플리마켓이라 긴장했는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신나고 생기 넘치는 모습에 에너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판매하는 내내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준 자원봉사자들의 응원 덕분에 열심히 잘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리마켓을 준비하는 동안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이 앞섰지만, 홍보·창업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들으며 더 발전할 수 있었고, 다른 판매자들의 판매방식과 고객들을 직접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셀러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의 기회가 되어 좋았고, 주최측의 여러 가지 지원과 다양한 행사로 알찬 플리마켓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은 마켓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시고 힘써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기회가 된다면 또 참가하고 싶습니다.”



“플리마켓에 참여하면서 제 안에 ‘상품의 전문성을 높이고 잘 판매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직원분들과 후원사 분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뜻깊었습니다. 플리마켓은 제게 정말 의미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플리마켓을 통해 한부모셀러들이 자립에 대한 용기와 꿈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부모들의 자립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유호정

* 본 사업은 사랑의 열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같이 어때!



‘여행’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위한 여행지원사업 ‘여기 같이 어때’ 시즌2를 통해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온 아동은 아래와 같이 소감을 남겼습니다.

종사자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여기어때’ 어플을 활용하여 숙소, 맛집, 레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타며 한 마리의 새가 된 듯 날개를 활짝 펴고 자유롭게 날았다. 내 생애 최고로 설레고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



여행출발 전, 안전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티슈, 여행용 파우치, 일회용 카메라, 임직원편지로 구성된 방역키트를 배분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여기어때 임직원분들이 보내준 손 편지를 한참 동안 읽으며 일기장에 고이 간직해두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여행테마를 기획하여 각각 롯데타워, 경주 유적지 탐방, 남이섬 보트투어, 홍천 스키체험, 강릉의 양떼목장, 여수 요트체험, 제주도 등 평소 가보지 못했던 다양한 지역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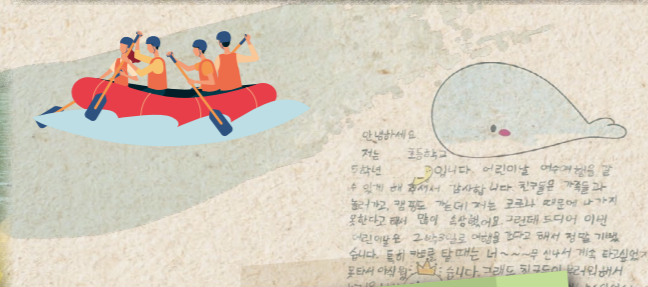
홀트아동복지회는 2020년부터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지내는 아동·청소년에게 놀이체육과 여행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공동생활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힐링여행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총 15개 시설, 128명의 아동과 시설

‘여기 같이 어때’ 시즌2를 마무리하며 여행 후기 공모전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번 여행이 아이들의 마음 한편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공모전에 참여한 4행시와 그룹홈에서 보내온 따스한 감사편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



"10월은 저의 마지막 그룹홈 생활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 그룹홈에서의 마지막 날을 가장 재미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룹홈의 맏언니입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그룹홈을 나와 혼자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조용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들과 함께 지낸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여행하며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즐거웠고 제가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면서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회인이 되면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날에 여수로 여행 가서 행복했어요.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코로나로 저만 놀러다니지 못해서 속상했거든요. 2박 3일 동안 그룹홈 가족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발달장애가 있는 막내 6살 아이가 여행지에서 '엄마, 하얀 눈을 봐. 난 이 얼음이 좋아. 엄마도 좋아라며 눈을 한 움큼 쥐고 저에게 선물처럼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긴 문장을 구사한 아이를 보며 다양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 번 깨달았습니다."

"시설에서 적응하기 어려워 웃음을 잃어가던 아이들이 여행을 통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씩씩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사회공헌협력팀 이순주



여기어때

여 여기같이어때의 귀한 여행의 지원으로
기 기나긴 삶의 여정, 기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어 어렵고 힘든 시간도 함께 했지만
때 때때로 단비처럼 내리는 기쁨의 시간을 함께 해서 행복했다.

여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도
기 기억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간질인다.
어 어느 순간 눈을 감으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반짝이던 제주의 풍경
때 때로는 바람 소리와 바다 냄새마저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날의 추억 한 장.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



선선한 바람이 다가오는 추석을 알리던 지난 8월 29일, 프롭테크 기업 '동네' 차민근 대표와 배우 수현, 방송인 강주는 씨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선물을 들고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았습니다. 시설에서 퇴소하여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직접 식료품을 구입하고 포장하며 진심 어린 마음을 선물에 가득 담았는데요, 자립준비청년과 만나 선물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감동의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으로 시설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민근 대표는 “시설에서 나와 혼자가 된 자립준비청년들이 명절을 앞두고 더욱 외로움을 느낄 것 같아, 연휴를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후원자님들의 소탈한 모습 덕분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수십 개가 넘는 명절 음식 키트를 직접 고르고 담았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했고, 이번 추석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달식 이후 자립준비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친구들은 스스로 자립생활을 그려 나가며 힘들었던 점, 그리고 사회를 먼저 경험한 후원자님들에게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 저는 지금 중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해요. 저와 같이 자립생활을 해나가는 친구 중 대부분은 서비스직이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고등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데, 저는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고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일이 '예술'과 '창작'의 영역이기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비용 걱정 없이 해당 분야를 전공으로 택하는 친구들이 더욱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에게 맞는지, 할 수 있는 일인지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 자립준비청년

A. 우리 친구들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자리를 지키며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을 지키기 위해 또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 고민을 통해 성장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 방송인 강주는

Q. 가끔은 제가 이방인 같다고 느낄 때가 있고,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인 서구권에서 생활하신 후원자님들의 경험담과 조언이 듣고 싶어요.

- 자립준비청년

A. 한국 사회는 정해진 기준과 틀이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활동할 기회를 잡기 위해 먼저 문을 두드렸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위한 노력도 했고요. 준비하는 만큼 저에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문이 열리더라고요.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준비하면, 분명 그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 배우 수현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이 와 닿았는지, 전달식에 참여한 한 자립준비청년은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마음 한편에 불안했던 마음 때문인지 스스로 바빠 움직여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처럼 빠르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일찍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슬럼프가 와서 쉽게 질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수현 배우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꿈을 길게 봐야 한다'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화 필름 테이프처럼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 나가 전문을 넓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며 저 자신을 꾸짖으며 포기했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조언과 격려의 말씀대로 꿈에 다가설 계획을 장기로 잡아 재미있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주는 후원자님의 따뜻한 공감과 격려, 힘을 주시는 말씀이 더해져 너무 완벽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혼자서 고민해 오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명절을 홀로 보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선물을 준비해 준 차민근 대표와 배우 수현, 방송인 강주는 씨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꿈을 위한 도전, 자립을 위한 도약에 함께해 주세요!



꿈을 향한 날갯짓의 시작

미용과 뷰티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시설청소년들이 진로체험데이를 맞아 특별한 곳에 초대받았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글로벌 뷰티기업 (주)뷰티크레아 이가자헤어비스는 지난 6월 홀트아동복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가자그룹의 최유빈 대표가 시설청소년들의 명예멘토로 위촉되어 자립준비청년들의 꿈을 위한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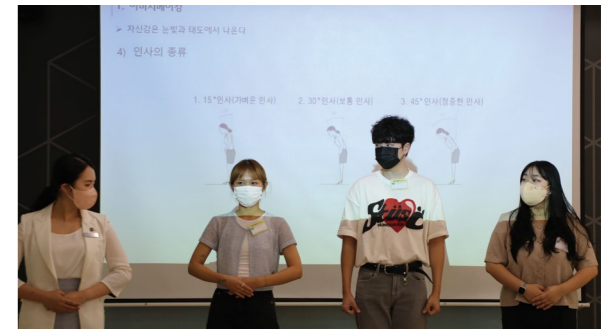


▲ 면접 이미지트레이닝 강의를 듣는 자립준비청년들

이가자헤어비스에 방문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질적인 조언을 들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노력한 덕분에 미용을 꿈꾸는 친구들은 모두 진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커졌으며 알차고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가자헤어비스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을 응원하기 위해 퍼스널컬러 진단 및 면접 이미지트레이닝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석한 친구들은 각자 퍼스널컬러를 진단받고 면접에 적합한 의상뿐만 아니라 목소리, 말투, 인사법 등 전반적인 에티켓을 배운 후 실제 모의면접을 진행해보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퍼스널컬러를 알게 되어 나에게 어울리는 복장과 메이크업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모의면접을 통해 실제 면접을 보는 것 같이 연습을 해보며 평소 가지고 있던 말투나 습관 등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되어 매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런 프로그램이 또 진행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을 만큼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마음가짐도 다질 수 있었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가자헤어비스의 맞춤형 지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이 더는 고민으로 그치지 않고, 꿈을 향한 힘찬 날갯짓의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준 이가자헤어비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글 아동복지팀 서혜림



네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



▲ 유치원 개소식 축하 공연



▲ 유치원 교실 내부



▲ 유치원 교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



지난 9월, 네팔 람중 지역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지역 내 첫 번째 유치원교실이 건축되어 개소식을 진행한 것이죠. 유치원교실이 지어진 네팔 람중 베시사할(Besishar)시는 수도에서 차로 7시간 이상을 가고도 산 중턱에 있는 철다리를 건너가야만 하는 오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지역에는 미취학 아동부터 8학년 아동까지 다닐 수 있는 유일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약 200여 명의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교실수가 총 10개로 아이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 유치원 교실이 건축된 네팔 람중 베시사할시 지역으로 가는 길

홀트아동복지회는 후원단체 '천사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유치원 교실과 놀이터를 건축하였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마을 주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건축 자재를 마련한 덕분에 건물이 무사히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네팔 마을 주민은 "이렇게 최신식 건물과 놀이터가 지어진 것이 이 마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유치원 교실을 건축하기 위해 마을 주민이 다 함께 노력하여 더욱 의미가 큼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네팔 파트너 NGO와 홀트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였고 마을 주민이 모두 모여 자리를 빛냈으며 학교 아이들의 축하공연으로 더욱 풍성하게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팔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후원해주신 '천사네트워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현지 지역의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지미경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고 싶어요



13살에 보육원 입소 후 성인이 돼 자립준비청년이 된 서은경(23) 씨는 홀트아동복지회 시설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파랑새, 꿈날)' 1기 멘티 중 한 명입니다.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자립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은경 씨는 '파랑새, 꿈날' 사업을 통해 저축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지원금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며 취업 시 큰 도움이 되었던 회계/컴퓨터 자격증을 10개나 취득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좋지만,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교육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립은 정보전이거든요. 전 '파랑새 꿈날' 덕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도적으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었어요.”



가족처럼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지지체계

은경 씨가 '파랑새 꿈날' 사업을 통해 얻은 건 무엇보다 멘토링을 통해 얻은 소중한 인연입니다. '파랑새 꿈날'에서는 시설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지를 돕기 위해 성인멘토와 시설청소년 멘티들을 매칭해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을 만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멘토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설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서 좋았어요. 진로에 대한 걱정도 멘토링 덕분에 큰 힘을 얻었구요. 멘토링에 참여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멘토, 멘티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내요.”

뿐만 아니라 시설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고 사회경험이 있는 인물은 '파랑새 꿈날 명예멘토'로 위촉하여 시설청소년들에게 삶의 지혜와 자립 노하우를 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멘티에서 도움을 주는 멘토로

은경 씨는 멘토 그리고 명예멘토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자립을 훨씬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도움을 받은 만큼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올해 '파랑새 꿈날' 5기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문제가 생기면 물어볼 데가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저는 멘토가 있어 의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젠 저도 멘토가 되어 든든한 언니, 누나가 되어주고 싶어요.”

사업 초기 대상자였던 멘티가 이제 시설청소년들의 멘토로 활동하게 되며 '멘티의 멘토화'를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파랑새 꿈날 사업

2018년부터 현대백화점그룹과 함께한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사업의 누적 후원금이 올해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사업 시행 5주년을 맞아 사업의 지원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고등학교 3학년 시설청소년 30명을 선발하여 퇴소 전후 2년간 지원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자립준비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등학교 2학년 시설청소년 45명을 선발해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지역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설청소년들의 자립을 함께 지지해주고 있는 현대백화점그룹은 “파랑새 꿈날”사업이 시설청소년들에게 자립 후 가족처럼 기댈 수 있는 멘토라는 지지체계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시설청소년의 자립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2022년 6월 파랑새 5기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파랑새 멘토, 멘티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랑새 꿈날'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시설청소년 자립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시설청소년을 향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현대백화점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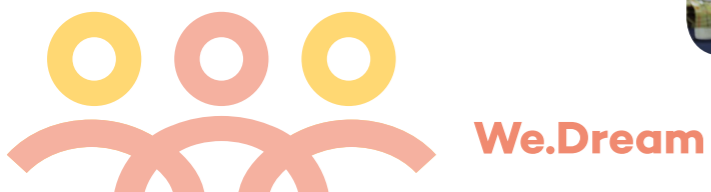
아이들의 소중한 나눔 가족, 홀트패밀리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전국의 홀트패밀리샵. 새롭게 나눔 가족으로 동참한 홀트패밀리샵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리치코리아, 나눔 가족이 되어주다

리치코리아의 브랜드인 한식 전문점 '훈장골'과 '촌장골' 16개 지점, 프리미엄 갈비 전문점 '갈비도락' 2개 지점이 올해부터 홀트패밀리샵으로 정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홀트패밀리샵 캠페인에 동참해 후원하고 있던 리치코리아 본사, 훈장골 김포점, 갈비도락 탄현점에 이어 어려운 아동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죠.



인터뷰로 만나는 홀트패밀리샵

“코로나19로 인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만화학원도 예전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동들은 더 소외되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홀트패밀리샵을 통해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 '씨존만화학원' 황덕근 후원자님



“지인 중에 홀트아동복지회에 정기 후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보며 나눔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알게 되었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조그마한 실천으로 행복을 느끼고 보탬이 된다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 '짐제이와이피(GYM JYP)' 박준영 후원자님



“나눔은 밸런시스코리아가 운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훌쩍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저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로 환원하고 싶었고요.”

- '밸런시스코리아' 박욱 후원자님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돕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후원하고 싶어 홀트아동복지회로 직접 연락했죠. 큰 도움은 아닐 수 있지만, 저의 나눔이 도움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 '해바라기' 조경화 후원자님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맛집으로 유명한 '묘한식탁'은 자립을 준비하는 시설청소년 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5기 멘토와 멘티를 위한 근사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추억 한 조각을 가져갔습니다.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다가, 홀트패밀리샵으로 처음 후원을 시작했어요. 이를 인연으로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근사한 저녁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싶은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그런 시설을 찾아보기 어려워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 '묘한식탁' 조경민 후원자님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홀트패밀리샵. 받았던 사랑을 다시 나누는 일의 소중함을 아는 어른으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할 것입니다.

글 나눔기획팀 정원경



홀트패밀리샵#이란?

홀트패밀리샵은 뜻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매월 일정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는 중소기업인 나눔 실천 캠페인입니다. 일반 매장, 자영업, 프랜차이즈업, 학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학교 학급, 어린이집 등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풍성한 사랑과 행복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이 기록된 '홀트패밀리샵# 현판 제공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연말 소득공제
- 매년 기부금에 대한 후원 결과보고
- 홀트아동복지회 매체를 통한 업체 홍보
- kt cs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무료 이용
- 정기적인 후원 관리

HOLT NEWS

본부

배우 김수현 팬들, 데뷔 15주년 기념 기부



7월 24일, 배우 김수현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하여 팬클럽 '디자이너사이드 김수현 갤러리' 팬들이 27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1년 동안 네이버 기부플랫폼 '해피빈' 공저금통을 통해 꾸준히 마음을 모아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한 것입니다. 팬클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기부하겠다는 후원 의지를 전했습니다. 후원금은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의료비, 주거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디앤코리아 DONGNAE(동네), 미혼한부모가족 물놀이키트지원



8월 5일, 프롬테크 스타트업 '동네(대표 차민근)'와 미혼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물놀이 키트를 전달하는 '우리 동네 씬머산타'를 진행했습니다. 임직원들이 후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수영복, 물총 등 물품을 준비하는 전 과정을 함께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천남부·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회공헌 협약 체결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을 없애고 원가정 기능 회복을 위해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아동 인구 대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정부 지원이 취약한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둔 가정을 중심으로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제공하여 아동의 회복과 재학대 발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2023년 1월 까지 7개월간 운영됩니다.

부산지부

아이젠트리(주), 입양대기아동 위해 후원금 전달



프리미엄 안경원 프랜차이즈 기업 아이젠트리(주)가 입양대기아동을 위해 4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2014년부터 이어져 온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전국 가맹점에서 실시한 '가정의 달 사랑 & 감사' 행사의 수익금 일부로 마련되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중소기업인 나눔 실천 캠페인 '홀트패밀리샵'에도 참여하며 2016년부터 7년째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아이젠트리(주)에 감사드립니다.

대구지부

㈜위드아이티-뉴동네점빵과 '1%의 나눔' 후원 협약 체결

8월 18일 체결한 후원 협약을 통해 ㈜위드아이티의 홈케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수수다'와 뉴동네점빵의 수익금 1%를 후원하며 대구지역 위기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홈케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가정 코로나19 소독·방역 실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물카 탐지기 설치 등 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청지부

미혼한부모를 위한 나눔콘서트 개최

9월 4일, 세종 BOK아트센터에서 'MOM IS



WOW' 나눔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미혼한부모 가정 지원 및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한 이번 나눔콘서트에는 4명의 실력파 연주자들로 구성된 연주팀 '윤덕현 Band(Guest 보컬 이푸름)'가 출연하였으며, 수익금은 충청지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의 예술 감각을 깨워요

성인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회가 일산 동구청 가온갤러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르떼아카데미(상상미술, 나는 사진작가)에 참여한 작가들의 일상을 멋진 사진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여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스마트 지킴이'

서울시, 강동구와 함께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기 '스마트 지킴이' 보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강동구 거주 발달장애인 72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삼계탕 드시고 건강합시다! '삼계탕 데이'

중복과 말복을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총 758명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을 대접하였습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문화와 놀자 '플레이키즈'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5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플레이키즈'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소도구 필라테스, 미술 수업, 칼리바 수업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함께 심리·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 평가회로 칼리바 특별공연을 진행하여 아동들의 성취감을 일깨워주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아동권리증진 사업 '오늘은 노는 날'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놀이문화 프로그램 '오늘은 노는 날'을 통해 놀 권리 인식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협동놀이와 자연융합 체험놀이를 경험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놀이 행사를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들의 꿈을 향해 걷는 길 '드림네비게이션'



탐리더스 임은주 위원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규사업 '드림네비게이션'을 향해 걷는 길'은 자기이해와 부모교육, 직업체현, 진로캠프 등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참여 학생들이 꿈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HOLT NEWS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건강식지원서비스 '복답복답'

중복을 맞이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150세대에 삼계탕을 전달하였습니다. 무더운 열기에도 조리를 위해 힘써준 '차밍댄스 봉사단'과 후원금 100만 원을 기부한 '동궁찜닭(상인점)' 등 지역주민의 나눔의 손길이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들

관계향상프로그램 실시

입소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MBTI를 활용한 관계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격유형의 관점에서 각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더욱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관계를 형성, 공동생활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고운들

맘 인권교육

고운들 엄마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등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엄마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름들

퍼스널컬러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진행

참가자들은 다양한 색의 천을 활용하여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색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어울리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색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클로버

아기와 엄마의 성장 축하 프로그램



일 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와 온 힘을 다해 아기를 지킨 엄마의 성장을 축하하는 돌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엄마라는 이름이 낯선 초보 엄마의 성장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대전클로버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엄마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하겠습니다.

광주클로버

광주후원회 무등산 플로깅 활동

광주클로버 소속 광주후원회는 국립공원 무등산의 자연환경 보호와 광주후원회의 단합을 고취하고자 플로깅 활동을 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20여 명의 후원회원들과 광주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해 준 가운데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우며 무등산 입구를 깨끗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춘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경주 한국문화 체험'



8월 28일, 1박 2일 동안 다문화가족 40여 명을 대상으로 경주에서 한국 문화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석굴암, 불국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경주박물관, 경주월드 방문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자국 문화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여 서로의 생활양식과 사고 방법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가족 친밀감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나의 특별한 날을 **너에게 선물할게**

특별한 후원이란? **문의: 02-331-7071**

응원하는 스타의 생일이나 아이 첫돌, 결혼, 승진 등 나만의 특별한 기념일에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와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해외 빈곤아동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더 큰 가족, 홀트아동복지회**

- 후원상담 · 문의 02-331-7073~6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 www.holt.or.kr
- instagram.com/holt_welfare
- blog.naver.com/sayholt
- youtube.com/loveholt
-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사업후원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전반적인 복지사업 지원

아동청소년후원
 입양대기아동 양육,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자립, 위기가정아동을 위한 통합지원

한부모가족후원
 자녀양육 및 교육, 주거 안정, 심리정서, 인식 개선, 자립역량강화 지원

장애인복지후원
 보호, 의료, 심리상담, 특수교육, 직업재활, 스포츠재활, 자립 지원

해외사업후원
 극빈층의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사업후원

국내 · 해외아동결연 후원
 도움이 필요한 국내 및 해외 아동이 후원자와 결연을 맺고 교육, 의료, 가정, 정서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결연아동의 성장을 돕는 후원

후원자님!

환경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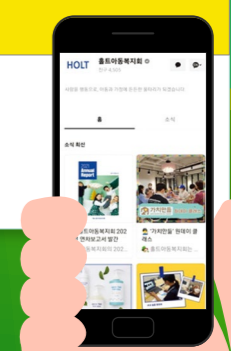
'홀트소식 온라인 수신 전환'에 동참해 주세요 ♡

KakaoTalk **홀트아동복지회**

#1.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로그인 하여 변경
 소식지 수신방법을 '수신안함'으로 변경 후
 'SMS, 이메일 수신동의' 선택

#2. 후원자상담센터를 통한 변경
 02)331-7073~7076으로 연락주세요

- 홀트아동복지회 카카오톡채널로
 홀트소식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눔기업입니다.



GOBI

MONGOLIAN CASHMERE